

## 桂枝湯의 氣味 표준화 연구(I)

金仁潑\*

### I. 서론

한의학에는 약재의 효능을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기미론이 있다. 기미는 산고감신 함 오미와 한열온량 사기이다. 기미가 달라지면 약효도 달라진다고 보므로 탕제의 기미는 일정하여야 하고,<sup>1)</sup> 기미가 일정하려면 먼저 약재 하나하나마다 기미가 일정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약재 38종에 대하여 지표물질을 설정하고 이것의 최소함량치 기준을 97년도까지 마련하였고, 98년부터는 계속하여 『대한약전』의 130종과 『한약(생약)규격집』의 384종을 합한 514종 모두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규격화를 보다 발전적으로 하기 위하여서는 종자·재배·수확·절단·건조·수치·보관등 전 과정을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임상에서는 약재를 조합하여 처방으로

이용하므로 약재 배합율·물량·약탕기 종류·불의 세기·달이는 순서와 시간·복용량 등도 일정하게 하여야 한다. 처방의 원조인 『상한론』에서는 약 하나하나마다 수치법과 절단크기, 1일분을 달일 때 넣는 물양과 달인 뒤의 약량·복용회수·금기사항 등이 상세하게 나와있고,<sup>2)</sup> 계지탕증이니 소시호탕증이니 하여 처방명이 바로 증후명이 되는 경우가 많아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하지만 『상한론』 처방을 응용할 때 『상한론』의 주문대로 하지 않고, 구성약물은 『동의보감』이나 『방약합편』 등에 근거하고, 달이는 방법은 관습대로 물을 넣고 2시간 정도 달여, 힘있게 짜고서는 재탕까지 하는 경향이 있다.<sup>3)</sup> 뿐만 아니라 약재

2) 전탕법으로서 소시호탕류 6방과 반하사심탕류 5방은 약을 달이다 찌꺼기는 버린 뒤 이를 졸이며, 대황황연사심탕과 부자사심탕은 달이지 않고 방금 끓인 물에 담구어 우려내며, 지실치자시탕은 먼저 물을 달여 졸이고서 여기에 지실치자를 넣고 달이다가 향시를 무명천에 싸서 넣어 달이며, 영계감조탕은 물을 막대기로 휘저어 거품이 수천개 일어난 물로 달이는 등 특이한 것이 많다.

3) 『상한론』에서는 하루치약을 한번만 달이게 되어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재탕법은 없다. 그리고 약마다 물량과 달인 뒤의 약량이 정하여져있다. 일반적인

\*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연구부

1) 약재 하나마다 약효가 여럿 있을 수가 있고 각 효능은 각각 다른 기미를 요구할 수가 있다. 따라서 약재 하나하나마다 반드시 똑같은 기미를 내어야 한다고는 볼 수가 없다. 대표적인 것으로 대황을 든다면 사하작용을 하는 것과 수렴작용을 하는 것이 기미가 달라져야 한다.

도 겹보기에 좋은 것에 기준하여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상한방을 운용하여서는 약의 기미를 재현하기가 힘들며, 약효가 장중경이 의도한 데로 나기를 바라기는 더욱 어렵다.

『상한론』에는 113방, 398조문, 87약재가 있는데, 가장 먼저 나온 처방은 계지탕이다. 계지탕은 계지·작약·감초·생강·대추로 구성되고, 이들 약재는 사용빈도로 볼 때 1위에서 5위까지이며<sup>4)</sup> 『금궤요략』을 합하여도 순위는 변함없다. 계지탕에 관련된 조문도 25개로서 가장 많으며, 상한방을 계통별로 묶어 보아도 계지탕류가 가장 많다.<sup>5)</sup> 이처럼 계지탕은 『상한론』의 기본방

이므로 장중경이 『상한론』에서 계지탕에 주문한 그대로의 기미를 찾아내어 표준화하고자 한다. 『상한론』의 주문이 가장 효과적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장중경의 의도대로 시행한 뒤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 2. 본론

### 2-1. 계지탕의 처방내용과 전탕법 원문.

『상한론』에서 계지탕과 관련된 조문은 25개이다. 그중 계지탕의 처방내용과 전탕법에 관한 원문이 실려있는 조문은 12조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桂枝三兩(去皮) 芍藥三兩 甘草二兩(炙)  
生薑三兩(切) 大棗十二枚(擘)

右五味, 㕮咀三味, 以水七升, 微火煮取三升, 去滓, 適寒溫服一升, 服已須臾, 飲熱稀粥一升餘, 以助藥力, 溫覆令一時許遍身發熱微似有汗者益佳, 不可令如水流離, 病必不除.

### 2-2. 계지탕의 처방내용.

계지탕에 사용되는 약물은 5가지로서 계지·작약·감초·생강·대추이다. 이 약재 5가지중 작약은 경북 의성에 작약시험장이 있고, 대추는 전남 나주에 농촌시험장이 있으며, 생강은 충남 서산에서 많이 생산된다. 감초는 약방의 감초라는 말이 있듯이

로 약은 진하게 달여야 좋다고들 생각하지만, 『소문』 「음양용상대론」에서 氣味를 厚薄으로 각각 나누어 약효를 분별하여 氣厚하면 發熱하고, 氣薄하면 發泄하며, 味厚하면 泄瀉하고 味薄하면 通한다고 하였다. 『소문』 「지진요대본」에서는 “補上治上制以緩, 補下治下制以急, 急則氣味厚, 緩則氣味薄, 適其至所, 此之謂也.” 라고 하였다. 완과 급은 의미는 「사기조선대론」의 “秋三月……天氣以急, 地氣以明.” 과 같고, 「상기법시론」 “肝氣以急, 急食甘以緩之.”와 같은데, 자세한 것은 김인락 「內經의 몇몇 句들에 대한 對句法的 연구(1)」,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1: 제5권:54-88. 에 나와있다. 따라서 위쪽을 보하거나 위쪽을 치료하는 데는 풀어놓는 약으로 조제하고, 아래를 보하거나 아래를 치료하는 데는 오그라들이는 약으로 치료하는데, 풀어놓는 약은 기미가 순하고 오그라들이는 약은 기미가 진하다는 의미이다. 약은 목적에 따라 진해야 할 것도 있고, 묽어야 할 것도 있다. 예를 들어 계지탕을 센불로 오래 달인다면 味는 진해질지언정 효과는 줄어든다. 계지에 있는 방향성이 많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4) 감초는 70, 계지는 41, 대추는 40, 생강은 37, 작약은 30회이다.

5) 『상한론』 처방을 계통별로 묶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김인락 『상한론처방분류집』, 제천: 세명출판사, 1997: 에서는 계지탕·마황탕·송기탕·사심탕·소시호탕·영계출감탕·치자시탕·건강부자탕류, 그리고 기타처방으로 구분하였다.

일반인에게 매우 친숙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나지않는다. 계지는 제주도 여미지 식물원에서 육계나무를 표본으로 거르고있다. 따라서 계지와 감초를 재배단계에서부터 품질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각 약물의 분량과 수치법을 원문에 근거하여 논하면 다음과 같다.

1) 桂枝三兩(去皮)

1-1) 桂枝에 대하여

계지는 樟科에 속한 肉桂나무(Pinna-momum cassia Presl.)의 어린 가지이다. 육계나무는 4종을 약용하는데 다음과 같다<sup>6)</sup>.

1. 天竺桂 : Cinnanomum japonicum Sieb.
2. 陰香桂 : Cinnanomum burmannii (Ness) Bl.
3. 細葉鄉桂 : Cinnanomum chingii Metcalf.
4. 川桂 : Cinnanomum wilsonii Gamble.

이 桂枝를 去皮하라 주문하였는데, 계지는 지름이 5mm도 되지 않으므로 거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柯琴은 『상한래소집』에서 桂枝(去皮)를 껍질과 속이 구별될 정도로 굵은 桂枝는 버리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去皮하라 한 것이 『상한론』에서는 계지·대황·도인·부자·저령·행인·후박 7가지이고, 『금궤요략』에서는 조협·오두·과두 3가지인데 모두 껍질을 벗겨내는 것이므로 柯琴의 설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상한론』의 桂枝는 오늘날의 계지가 아니라 桂皮나 肉桂로 보아야 한다. 桂枝人蔘湯은 인삼탕을 물 9승으로 달여 5승을 만든 뒤 계지를 넣고 다시 달여 3승을 만드는데, '內桂'라고 하였으니 桂枝를 桂라고도 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계지인삼탕에서만 계지에 대하여 去皮란 말이 없는데, 이는 인삼탕이 주이고 계지는 객이기 때문에 계지에 대하여 去皮란 주문을 생략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영추』 「경근」에서 “足陽明之筋, ……治之以馬膏, 膏其急者, 以白酒和桂以塗. 其緩者, 以桑鉤鉤之, ……”라 하여 桂로 되어있다. 『靈樞』 「壽夭剛柔」에서도 “伯高答曰, 用醇酒二十升, 蜀椒四升, 乾薑一升, 桂一升, 凡四種, 皆咬咀, 漬酒中, ……”라고 하였는데, 다른 판본에서는 桂가 桂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내경』과 『상한론』에서 桂·桂枝·桂心이 모두 같은 것일 수가 있다.

『상한론』에서 桂枝를 桂라고도 하였고 去皮라고 하였으므로 오늘날의 육계에 해당하고 이를 거피하면 결국 계심과 같고, 이것은 『내경』의 것과도 일치한다. 현재 사용하는 계지는 원래 “榆桂”라 하였는데, 宋의 陳承이 지은 『本草別說』에 처음 실려 있다.<sup>7)</sup>

肉桂는 육계나무 줄기의 껍질을 벗겨 건조한 것인데, 건조되면서 양쪽 끝이 말리는 정도가 성장년수에 따라 다른데, 이 모양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눈다.

1. 官桂 : 5,6년생의 껍질을 8 - 10 월에 벗겨 건조한 것으로 管처럼 말려있으며

7) 柴瑞馨, 「重新論識肉桂“發汗解肌”作用」, 『中醫雜誌』 1989: 제5호: 55.에서 재인용.

6) 江蘇新醫學院編, 『중의중약대사전』,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891.

지름은 5cm정도이다.

2. 企辺桂 : 10년생의 것을 말린 것으로 양끝단 둥글게 말려있다.

3. 板桂 : 10년 이상된 것을 말린 것으로 넓게 펴져 있다.

이들은 길이 60-70cm, 두께 4-5mm 정도이다<sup>8)</sup>.

계피는 육계나무의 가지껍질을 벗겨 말린 것인데, 관처럼 말려있고 지름은 2-3cm 두께 2mm 정도이다.

### 1-2) 去皮의 의미

桂枝三兩(去皮)는 肉桂三兩을 去皮한 것인지, 肉桂를 去皮한 것 三兩인지, 다시말하면 3냥이 거피하기 전의 무게인지, 거피한 후의 무게인지가 문제시 된다. 만약 肉桂 3냥을 거피한 것이라면 거피하는 정도에 따라서 무게도 일정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육계나 계피를 거피한 것 3냥이라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거피하는 시점이 육계나무에서 계피·육계를 벗겨낸 뒤 바로 거피하는가? 아니면 벗겨낸 것을 말리고 난 뒤에 보관하다가 약으로 사용할 때 거피하느냐가 문제시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상한론』에서 수치법이 말린 약을 기준한 것인지, 생 것을 기준한 것인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生附子나 大黃을 去皮하라고 하였는데 금방 캐낸 뒤에는 껍질을 쉽게 벗길 수가 있지만 마르면 껍질을 벗기기가 매우 어렵다.

大棗나 梔子是 擘하라고 하였는데 마른 뒤

에 찢으려면 단단하여 찢기가 매우 힘들므로 젖은 상태일 때 찢어야 한다. 그리고 『금궤요략』에서 百畝를 擘하라고 하였는데 마른 것은 부러질 뿐이고 젖은 것이라야 擘할 수가 있다.

甘草는 炙하라고 하였고, 枳實은 소승기탕에서 큰 것 3개를 炙하라고 되어있다. 炙는 熬와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니 감초나 지실을 잘라놓은 상태에서는 炙를 할 수가 없다. 厚朴은 炙, 去皮하게 되어있는데,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것은 이미 너비 5mm 정도로 잘라져 있기 때문에 이를 거피하기란 불가능하다. 뿐만아니라 炙의 의미는 감초(炙)에서 논하겠지만 불에 굽는 것이므로, 이미 잘라진 것은 불에 굽기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후박을 벗겨 판으로 되어있을 때 炙해야 한다. 여기에는 젖은 상태에서 炙를 하여 말린다는 의미도 있다.

현재 황기나 인삼·작약 등도 캔 뒤에 바로 껍질을 벗긴다.

이상에서 보듯이 『상한론』에서의 수치법은 젖은 상태에서 바로 하는 것이지만 말린 뒤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젖은 상태일 때 바로 거피하고서 절단한다면 절단면이 깔끔하고 손실도 적을 것이다. 하지만 시중에서는 콜크층이 붙은 그대로 말린 것이 수입되므로, 육계를 그대로 쓸면 부서져 보기에 좋지않고 손실도 많으므로, 물에 담구었다 가로 세로 1cm 나 1.5cm정도로 썬다. 이렇게 하면 보기에 좋지만 육계의 성분들이 많이 빠져나가 버린다.

그리고 주문에는 언급이 없지만 육계는 방향성이 있고 방향성도 중요한 약효를 내므로 밀봉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去皮하는 범위는 梔莢을 括去粗皮라고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표피와 콜크층을 모

8) 江蘇新醫學院編. 『중의중약대사전』.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891.

두 또는 거친 부분만 끊어내는 것이다.)<sup>9)</sup> 황백이라면 표피와 cork층이 두터워 표피를 위로 가게 얹어놓고 위에서 나무방망이로 두드리면 잘 떨어진다.<sup>10)</sup>

그리고 『상한론』에서 去皮하란 주문이 먼저 나오고 다음에 咬咀란 주문이 나온다. 따라서 咬咀한 것을 거피하는 것이 아니라, 거피한 것을 부저하는 것이다. 현재 한의원에 들어올 때 육계는 가로 세로 1.5cm 정도로 잘라져 있는데 이러면 거피할 수가 없고, 나무에서 큼지막하게 벗겨낸 것을 바로 거피하고 부저해야 한다. 부저의 의미는 다음에 논한다.<sup>11)</sup> 콜크층은 작은 구멍들이 많이 있어 수분을 흡수하므로 약을 달일 때 콜크층이 있으면 육계의 약효성분을 흡수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콜크층의 성분들이 우러나오기도 한다. 육계를 거피한 것은 계심이다. 따라서 桂枝三兩(去皮)는 桂心 3냥을 의미한다. 계심을 사용한 예는 『영추』 「수요강유」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는데, 寒痺증을 치료하려 藥熨을 할 때 “用醇酒二十斤, 蜀椒一斤,

乾薑一斤, 桂心一斤, 凡四種, 皆咬咀, 漬酒中, 用綿絮一斤, 細白布四丈, 并內酒中, 置酒馬矢燂中, 蓋封塗, 勿使泄.”이라고 하였다.

1-3) 1 兩이란

『상한론』에서 1斤은 16兩, 1兩은 4分, 1分은 6銖인데, 1兩이 오늘날로 보면 몇g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서는 설이 구구하지만 아직 정설은 없다. 이를 추정할 근거를 계지탕 약재 5가지의 분량에서 찾을 수가 있다. 계지탕에서 대추의 하루치분량을 12개라 하여 갯수로 표현하였지만, 계지 작약 생강이 모두 무게단위로 3냥이고 감초만 2냥이므로 대추 12개도 3냥이 된다고 본다. 대추 12개가 3냥에 해당되는 것이 씨앗을 포함한 무게인지, 씨앗은 빼 무게인지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씨앗무게는 빼낸 것이다. 이유는 대추의 씨앗은 약효가 거의 없고 독성도 없기 때문인데 대추 향에서 자세히 논한다.

또 다른 문제는 대추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으므로 크기를 어느 것으로 하느냐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상한론』에서 대추의 크기에 대한 주문은 없다. 다만 十棗湯에서 대추 큰 것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상한론』에서 약을 갯수로 나타낸 것중에 枳實이 小承氣湯에서만 大者란 주문이 있고, 梔子도 梔子柏皮湯에서만 肥梔子란 주문이 있으며, 附子도 통맥회역탕과 통맥회역가저담죽탕에서 大자란 주문이 있다. 따라서 별다른 주문이 없는 것은 크기가 평균적인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苦酒湯에서 半夏를 대추씨앗 크기 정도로 깨뜨린다 하였는데, 반하는 형태가 완전한 구형은 아니어서 한쪽이 약간 함몰하였다. 따라서 긴쪽은 1cm정도 되지만 짧은 쪽은

9) cork층에는 약효가 없을 뿐아니라 우러나온 약효성분을 흡착하기 때문으로 본다.

10) 황백을 학명으로 *Phellodendron amurense* Rupr. 이라하고, 영어로는 cork tree라 한다. Phello는 cork란 의미이고, dendron은 나무란 의미이다. 任慶彬, 『나무백과』, 일지사, 서울, 1993.

11) 계피나 육계를 상품화할 때 보기 좋게 자르기 위하여 말린 것을 물에 담구었다 자른 뒤 다시 말린다. 뿐만아니라 육계를 밀폐 보관하지 않고 노출시켜 전시하고 판매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계피나 육계는 방향성이 있는 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방향성이 많이 손실되므로 밀폐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하고, 자를 때에도 『상한론』의 주문대로 하여야 한다.

여기에 미치지 않는다. 대추씨는 길이는 길고 너비는 짧다. 그리고 반하를 깨뜨렸을 때 1/2 조각난다고 본다면 반하 지름의 1/2이 대략 대추씨앗의 너비정도가 된다. 대추씨앗의 길이는 반하지름보다 조금 클 수는 있다. 따라서 대추 씨앗이 길이가 1cm 정도인 것 12개의 무게는 대략 21g인데 씨앗은 4g이고 대추육은 17g이다. 대추 12개는 씨앗을 뺀 무게가 17g정도이고 이것이 3냥에 해당하므로 1냥은 6g 정도라고 본다.

## 2) 芍藥三兩

### 2-1) 백작약과 적작약의 구분

芍藥을 赤芍藥과 白芍藥으로 구분하는 것은 唐이후에 宋의 蘇頌이 지은 『圖經本草』에서 부터이다. 이 조문에서는 껍질을 없애라든지 찌라는 주문이 없으므로 唐 이전에는 毛茛科(Paeonia Lactiflora Pall)의 뿌리이고 현재의 적작약임을 알 수 있다<sup>12)</sup>는 주장도 있으나 여전히 미지수이다. 현실적으로는 작약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껍질을 벗기고 말린 뒤 다시 물에 담구어 불리었다 이를 자르고 말리는데, 온도가 40℃이하이면 하얗게 되지만 60℃가 넘으면 대부분 적작약처럼 된다.<sup>13)</sup> 따라서 적백의 구분은 꽃이나 뿌리의 색깔에 따라서도 아니고 髓에 따른 것도 아니라, 건조방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sup>14)</sup>

12) 柴瑞麟, 「芍藥古今名實考」, 『北京中醫藥學學報』 1991: 제1호: 49-50. 張成元, 「張仲景方中“芍藥”的使用考證」, 『福建中醫藥』 1993: 제3호: 44-46. 『傷寒論』과 『金匱要略』에서 芍藥을 사용한 처방은 64종류가 된다. 도홍경이 적, 백을 분리하였다는 설도 있다.

13) 96년 11월에 경북 의성작약시험장에서 확인하였다.

### 2-2) 芍藥去皮에 관하여:

현재 임상가에서 사용하는 작약은 껍질을 벗긴 것이다. 작약을 캐면 바로 박피기에 작약과 모래와 자갈을 넣고 물을 뿌려가면서 돌려 마찰에 의해 껍질을 벗긴다. 그런데 『상한론』에서는 작약을 껍질 벗기라는 주문은 없다. 껍질을 벗기는 것과 벗기지 않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껍질은 과연 벗겨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를 추적할 근거는 작약의 기미에서 찾을 수가 있다.

『신농본초경』에서는 작약을 맛은 쓰고 기운은 평하다 하였는데, 『명의별록』에서는 맛은 시고 기운은 평하면서 조금 차다고 하였다. 계지탕에 들어가는 계지·감초·생강·대추는 모두 따뜻한데, 작약만이 조금 차가워야 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평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생것을 맛보면 대단히 쓰므로 『신농본초경』의 기술과 일치한다. 『신농본초경』에서는 작약의 약효를 “사기로 말미암아 배가 아픈 것을 없애고 혈비를 없애며 단단한 적을 깨뜨려 한열징가를 치료하고 소변을 잘보게 하며,”<sup>15)</sup> 라고 하였다. 以苦泄之라 하였듯이

14) 생작약은 수분함량이 57%이고 이를 건조시켜 15%로 만들게 되는데, 거피 후 연탄불로 40 - 60℃에서 6·12·18·24·72시간 건조하면 수분은 51.7·42.9·32.7·24.6·12%로 줄어든다. 수분함량이 14- 15%가 되면 생약무게의 48- 50% 정도가 된다. 연탄불로 6시간 이상 건조시킨 후 열풍건조를 추가하여 모두 60시간을 건조하면 약효도 높고 갈색으로 변색되는 것도 막는다.(김기재·류오종·박소득·신중희·최부술, 「작약의 건조처리 및 절제방법에 따른 특성 변화」, 『한국약용작물학회지』 제4권 제4호: 308-313.)

15) 邪氣腹痛, 除血痺, 破堅積, 寒熱疝瘕,

작약은 쓴맛으로 혈기가 멎친 것을 깨뜨리는 약이다. 『상한론』 28조에 계지가작약대황탕을 사용할 때에 설사를 하면 작약을 줄여서 쓰라하였고, 31조에 현무탕을 사용할 때에도 下利하면 芍藥은 빼버리라고 하였다. 그리고 桂枝去芍藥加蜀漆龍骨救逆湯이 회양구역하고 계지거작약가마황세신부자탕이 수음을 따뜻하게하여 흘는데, 모두 작약을 빼버렸다. 22조에서 설사시킨 뒤에 위장의 기운이 약하여 기운이 위로 떠올라 흉만한데에도 작약은 위장의 기운을 내리기 때문에 빼버렸다. 279조에는 복만시통하는데는 작약을 더 넣었는데 이도 苦味로서 漚하게 하여 복만을 내리는 것이다. 회역산이나 마자인환·대시호탕 등에서도 모두 작약이 시호·지실·대황·후박·길경·지실 등과 함께 漚하거나 降하는 작용을 한다.<sup>16)</sup>

작약이 맛이 시다는 것은 작약 말린 것을 그대로 먹을 때 처음에 약간 신맛이 날 뿐이다. 흔히들 작약을 酸味가 있다하여 酸以收之란 법칙에 따라 땀을 그치게 하는 약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맛이 쓰기때문에 營氣를 고르게 하고 陰을 더하는 약이며 苦味로서 通하게 하여 營氣의 瘀血을 없애는 약이다.<sup>17)</sup> 현대 약리학적으로는 작약은 혈관을 확장시킨다. 후세방에서 땀을 그치게 하는 약으로 유명한 처방인 육황탕·육명풍산·모려산 등에 모두 작약은 들어있지 않다.<sup>18)</sup> 계지탕도 땀을 그치게 하는 처방

이 아니라 땀을 내게 하는 처방이다.

작약의 주 성분은 Paeoniflorin 인데 이것의 맛은 쓰다. Paeoniflorin은 해마다 일정치 않아 1994년에는 4년근이, 95년에는 3년근이 가장 높았는데 각각 4.06%, 3.14% 였다.<sup>19)</sup> Paeoniflorin 은 작약의 껍질에 2배가 많다. 따라서 작약의 껍질은 『상한론』의 주문대로 그대로 두어야 한다.

그리고 시중에서는 작약을 껍질 벗기고 말린 뒤 다시 물에 담구었다 밀봉한 후 자른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생것을 잘라 그대로 말리면 마르면서 뒤틀어져 조글조글해 지기 때문에 보기에 상품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sup>20)</sup> 말린 작약을 물에 담구었다 이를 밀봉하고 다시 말리면 보기에 좋지만 작약의 약효는 어떻게 될까? 약이 좋은가 나쁜가는 기준이 겉보기와 약효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육계를 보기 좋게 자르기 위해 물에 담구었다 자르는 것이 약효는 오히려 떨어진 듯이 작약도 그렇다고 본다. 작약의 주성분인 Paeoniflorin을 기준한다면 물에 담그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성분은 줄어들고 밀봉하는 시간과는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sup>21)</sup> 이는 물에 담그는 동안 주성분이 녹아나오기 때문이다. 요사이의 한의원에서 약을 달여주므로, 현실적으로 주굴주굴하다는 것이 심각한 문

· 止痛, 利小便, 益氣.

16) 李華·姜秀濤. 「芍藥氣味功效當議」. 『國醫論壇』, 1996: 1: 41-42.

17) 沈濟蒼. 「桂枝湯方論當義」. 『上海中醫藥雜誌』, 1982: 9-7.

18) 李華·姜秀濤. 「芍藥氣味功效當議」. 『國醫論壇』, 1996: 1: 42.

19) 김기재·류오중·정연준·박소득·신종희·황형박·최부술. 「작약 재배년수에 따른 根收量 및 Paeoniflorin 함량변화」. 『약작지』, 제4권 제1호: 68-73.

20) 30분 정도 수침후 12시간 밀봉처리 후 자르는 것이 그래도 겉보기에 의한 상품성과 paeoniflorin의 함량을 높일 수 있고 건조시간이 단축되었다. (「작약의 건조 및 절제방법에 따른 근 특성 변화」, 312.)

21) 작약의 건조 및 절제방법에 따른 근 특성 변화: 311-312.

제는 되지않는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상한론』의 주문대로 껍질을 벗기지 않은채 말렸다 쪼개어 사용하여야 한다.

### 3) 甘草二兩(炙)

#### 3-1) 감초에 관하여

감초는 세계적으로 30여종이 있고, 중국에서만 6종이 있다. 일반적으로 약용하는 것은 3종으로서 감초(*Glycyrrhiza uralensis* Fisch.)·光果甘草(*G. glabra* L.)·脹果 감초(*G. inflata* Batal)이다. 약방에 감초라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표본으로 기르는 정도이지 상품화될 정도로 다량 재배되지는 않는다.

#### 3-2) 炙의 의미

상한방 113종에서 감초가 들어간 처방은 70종이나 되는데, 감초탕과 감길탕에서만 炙하라는 주문이 없을 뿐 나머지는 모두 炙하라 하였다. 『상한론』에서 炙하라고 주문한 약물은 4가지가 있으니 감초·후박·지실·梔子이다. 『금궤요략』에서도 4가지로서 백합, 별갑, 蜂窩, 生狼牙이다. 熬하라 한 것이 10가지 있는데 과채·맹충·모려·상륙·수질·芫花·猪膚 정력자·파두·행인이다. 그리고 행인을 『금궤요략』의 마행의감탕에서는 炒하라 하였으므로 熬와 炒는 같다고 본다.

『금궤요략』 「학병맥증」 제4에서 鱉甲煎丸이 있는데 별갑을 炙하라 하였다. 만일 별갑을 깨뜨려놓은 상태라면 炙라 하지 않고 熬라고 하였을 것이다.

炙는 불위에 직접 올려놓아 굽고, 熬는 철판위에서 볶는다. 炙는 석쇠구이이고 熬는 철판구이라고 할 수가 있다. 물론 炙를 할 때 불꽃에서 얼마나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온도가 조절된다.

杏仁과 지실을 비교하건데 행인처럼 작은 것은 철판위에 놓고 볶는다.<sup>22)</sup> 감초나 후박·지각은 모두 자르기 전에 불위에 직접 놓고 구워야 한다. 그리고 나서 후박은 껍질에 있는 것들을 끊어 낸다. 그러면 온도가 어느 정도에서 얼마나 炙하여야 효과가 가장 좋은가?

현 한의계에서는 炙감초를 만들 때 철판위에서 볶는데 이는 정확하게 말하면 炒라고 보아야지 炙로 볼 수는 없다. 김남재는 현 한의계에서 행하는것에 근거하여 자감초는 감초를 철판위에서 볶는 것으로 보고, 170℃에서 1시간을 볶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하였다.<sup>23)</sup> 감초의 주성분은 Glycyrrhizin(GL)인데 5%정도 들어있다. 이는 18-β-glycyrrhetic acid(GA)의 3번 탄소에 D-glucuronyl-β-1, 2-D-glucuronic acid 가 포함된 구조이다. 이를 170℃ 이상에서 炙하면 18-β-glycyrrhetic acid (GA) mono-β-D-glucuronide가 되고 다시 glycyrrhetic acid가 되는데, 170℃ 이상에서는 타버리게 되므로 170℃가 가장 적당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감초를 炙하면 감초의 Glycyrrhizin에서 glucose 2개가 모두 떨어져나가 Glycyrrhetic Acid가 된다.<sup>24)</sup>

22) 지실이 오늘날의 지실이라면 炙하라고 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따라서 지실은 오늘날의 지각이란 설이 여기에서도 증명되 된다.

23) 김남재·진영호·홍남두. 「한약수치에 관한 연구(제4보) 수치에 의한 감초중 Glycyrrhizin의 물리화학적 변화」. 『생약학회지』 1995; 제26권: 31-39.

김남재·홍남두. 「한약수치에 관한 연구(제5보) 수치에 의한 감초의 성분 및 생리활성」. 『생약학회지』 1996; 제27권: 196-206.

24) 감초의 Glycyrrhizin은 장내세균에



하지만 김남재나 시중에서 하는 방법은 모두 굵는 것이 아니라 볶는 것에 해당하여 『상한론』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뿐만 아니라 『상한론』에서는 甘草(炙) 한 것을 부저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자르기 전에 젓어 있는 것을 통채로 불에 굵고서 다음에 부저하는 것이다.

#### 4) 生薑二兩(切)

생강에는 껍질을 벗기라는 주문은 없다. 그리고 切하라고 되어있어 부저와는 구분되는데 계지나 작약 감초는 비록 생것이라도 칼로 쓸기는 힘들지만, 생강은 칼로 자를 수있기 때문에 본다. 시중에서는 干三薑二라고 하여 생강을 개수단위로 3쪽 넣지만 『상한론』에서는 생강도 계지나 작약처럼 무게단위로 3냥을 넣게 되어있다. 『상한론』을 지을 당시에 생강을 가을에 캐서는 다음해 가을까지 어떻게 보관하였는지는 분명치 않다. 生薑二兩(切)은 생강을 껍질채 칼로 자른 것 2냥이다.

#### 5) 大棗十二枚(擘)

##### 5-1) 대추에 관하여

大棗라 함은 큰 가시가 있다는 의미이다. 대추는 갈매나무과의 대추나무속에 속하는 교목성과수이다. 세계적으로 2종이 있는데 중국계(*Zizyphus jujuba* Miller, 英名: Chinese jujube)와 인도계(*Zizyphus mauritiana* Lam. 英名: Indian jujube)이

---

의해서도 글루코스 2개가 모두 떨어져 나가고 Glycyrrhetic Acid가 되면 흡수되어 약효를 나타내는데 Glycyrrhetic Acid는 맛이 달지 않다는 설이 있다. 한의학에서는 감초가 감미때문에 완화작용을 한다고 보는데 2 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이들은 형태가 완전히 다르다.

중국계는 크고 타원형이며, 인도계는 작고 원형이다. 중국계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일본 등 아시아와 남부 러시아·루마니아·불가리아 등 유럽지역 및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미대륙 중남부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온대낙엽수이다.

인도계는 인도·파키스탄·남부중국을 비롯한 아열대 및 열대지방에서 재배되는 열대성 상록과수로서 추위에 약하여 온대에서는 재배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대추야자(*Phoenix dactylifera* L. 英名: Date palm)가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 등 중동지방에서 재배되고 있는데 이는 야자과에 속하여 대추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 5-2) 擘의 의미

대추를 쪼개는 시기는 나무에서 따서 바로 쪼갠 뒤 말리는 경우와, 통채로 말린 뒤 쪼개는 경우 2가지로 추정할 수가 있다.

대추를 말린 뒤에 쪼갠다면 단단하여 힘이 많이 들지만, 딱 뒤에 바로 쪼개면 쉽게 쪼갤 수가 있다. 그리고 껍질을 그대로 둔채 햇빛에 말리면 20일 이상이 소요되고, 50℃에서 말리면 3일이 소요된다.<sup>25)</sup> 쪼개어 말리면 이보다도 빠르다. 뿐만 아니라 약을 달일 때 껍질을 찢지않고 그대로 넣고 달이면 껍질이 수분통과를 방해하여 밖의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안의 약물도 밖으로 나가지 못해, 약성분이 우려나오는 속도는 쪼개어 넣은 것에 비해 1/2이 되고, 우리나라 성분량은 1/3이 된다.<sup>26)</sup>

---

25) 김월주·김용석, 『대추재배신기술』, 서울: 오성출판사, 1995: 231-235.

26) 李東 등, 『中成藥』 1987: 제11호: 47.

따라서 대추는 반드시 탄 뒤에 바로 쪼개어 말린 것을 약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런 것에 비추어 본다면 산조인이나 팔부인 등도 약을 달일 때 반드시 쪼개어 넣어야 할 것이다.

약을 달일 때 씨앗은 빼내어란 주문은 없는데, 씨앗을 그대로 둔채 달여도 우려나온 성분은 전체의 4% 뿐이고 해로운 성분은 없다.<sup>27)</sup> 이러한 이유는 대추씨앗이 두껍고 단단하며 봉합선도 단단하게 붙어 있기 때문으로 본다. 대추종자를 과육을 제거하고 겨울동안 보관하였다 봄에 파종을 하게 되면 발아율이 1/10정도로 저조하다. 씨앗의 껍질이 두꺼워 수분과 산소공급이 제한되어 종자의 발아조건이 좋지않을 뿐아니라, 봉합선이 단단하게 접합되어 있어 발아가 되더라도 떡잎과 뿌리가 껍질을 뚫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씨앗의 위아래 뾰족한 부분을 가위로 자르고 다시 뾰뚱으로 아래위를 눌러 껍질을 깨뜨려 주어야 한다.<sup>28)</sup> 이 정도이므로 씨앗을 그대로 둔채 달여도 대추육의 약효성분만 우려나올 뿐 씨앗의 성분은 그다지 우려나지 않아 성분변화는 거의 없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볼 때 대추는 생 것을 따자마자 쪼갠 뒤 말리고 씨앗은 그대로 둔채 달이는

것이 좋다고 본다.

### 5-3) 12枚의 의미

대추가 든 처방은 『상한론』에서 40개, 『금궤요략』에서 25개이다. 자감초탕에서 대추를 30개, 당귀사역가오수유생강탕에서 25개, 월비탕에서 15개, 영계감조탕에서 15개 사용하였고, 마황탕류에서는 대청룡탕에 10개 사용하였으며, 승기탕류와 치자시탕류 그리고 건장부자탕류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단연코 대추를 12개 사용한 처방이 가장 많이 나온다. 대추 12개에서 씨앗을 뺀 대추육만의 무게가 3냥에 해당한다.

### 2-3. 달이는 방법

#### 1) 右五味, 咬阻三味

右五味라 하고서는 三味만 부저하라고 하는 문투는 桂枝조에서 인용한 『영추』, 「수요강유」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 2) 咬阻三味の 의미

생강과 대추는 각각 生薑(切)·大棗(擘)이라 하여 자르거나 쪼개라는 주문이 바로 붙어 있고 계지, 감초는 桂枝(去皮)·甘草(炙)라 하여 去皮나 炙를 먼저 하고 나중에 부저를 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생강을 자르는 것은 쪄는 것이고, 대추도 쪄는 것일 때 쪼갠다고 본다. 이와는 달리 계피·감초는 去皮하고 炙하여 말린 것을 부저하게 된다.

咬阻는 지금까지 입구변 때문에 입으로 씹어 자르는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생강을 切하라하고, 말린 약인 작약이나 육계 감초는 부저하라고 하였는데, 감초라면 몰라도 작약이나 계지는 단단하여 입으로 씹어 잘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27) 劉中煜. 『中藥通報』 1983; 제3호: 23.

28) 산조인은 물에 완전히 불린 뒤 면포에 넣고 25℃ 따뜻한 온수에 두면 2주 뒤에 껍질이 저질로 터지기 시작하며 껍질이 터진 것을 매일 파종한다. 그러면 4,5일 뒤에 발아한다. 최종적으로 껍질 파열율은 66.3%이고 발아율은 63.3%이다.(김월수·김용석. 『대추재배신기술』.)

팔부인도 껍질이 단단하여 발아율이 낮고 이를 그대로 달이면 약효성분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반드시 껍질을 깨뜨리고 넣어야 한다.

그리고 『금궤요략』 「中風歷節病脈證并治」 烏頭湯에서 烏頭와 「肺痿肺癰咳嗽上氣病脈證治」 澤漆湯에서 반하를 부저하라 하였다. 오두를 입으로 씹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고, 반하는 『상한론』에서 생으로는 독이 있어 사용하지 말라고 주문하였듯이 실제로도 반하를 씹는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뿐만아니라 『영추』 「수요장유」에서는 蜀椒와 乾薑을 咬咀하라고 되어있는데, 축초와 건강을 입으로 씹어 쪼갠다는 것도 쉽게 이해가지 않는다. 따라서 부저를 입으로 씹어 잘게 쪼갠다는 설은 옳지 않다. 현대적으로는 추말하는 정도일 것이다.<sup>29)</sup>

부저를 반하·오두·附子(破八片)·剉麻豆·散과 관련지워 보면 다음과 같다.

반하의 분량이 소반하탕에서는 1승인데 대반하탕에서는 2승이다. 그리고 소반하탕에서는 반하를 물로 씻고 깨뜨리라고 되어 있는데, 대반하탕에서는 통채로 사용하게 되어있다. 이를 보면 반하는 분량이 적을

때는 잘게 쪼개어 사용하지만, 분량이 많아지면 크기를 크게 하여 사용한다. 오두도 마찬가지로 오두탕에서는 5개를 부저하여 사용하였는데, 대오두전에서는 큰 것을 사용하므로 부저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炮附子를 1개나 2개 또는 3개를 사용할 때 破八片하는 것도 크게 쪼개어 성분이 조금만 우리나라에 한다. 생부자를 사용할 때도 8조각으로 쪼갠다. 그리고 부자를 사용할 때 물양은 부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적어진다.

剉하라는 주문이 『상한론』에서는 없고, 『금궤요략』에서는 7개가 있는데 다음 표1과 같다.

이중 방기황기탕을 보면 방기 백출 황기를 마두크기로 부순다로 되어있고, 생강 4쪽 대추 1개로 되어있다. 이를 보면 생강은 짓은 것이어서 칼로 자르지만 다른 것은 마른 것이어서 찢어 쪼개야 한다. 麻豆는 黑脂麻·胡麻 등으로 미루어보아 들깨인

	크기	약	물	1회량
마황행인의이감초탕	剉麻豆大	4錢	1盞半	8分
방기황기탕	剉麻豆大	5錢	1盞半	8分
일물과채산	捰	24개	1升	5分
백호가계지탕	捰	5錢	1盞半	8分
출부탕	捰	5錢	1盞半	8分
계지탕	捰			
도화탕	赤石脂一斤 一半剉一半篩末			方寸匕

표 1) 『금궤요략』에 나온 捰하는 처방

것으로 추정한다.<sup>30)</sup> 따라서 剉하라 한 것은 크기가 들깨정도 되게 하라는 것인데 이렇게 한 약들의 분량은 모두 4전이나 5

29) 田樹仁, 「咬咀考辨」, 『醫古文知識』 1992: 1. 楊逢彬, 「咬咀探源」, 『醫古文知識』 1993: 1: 2-3. 田樹仁, 「就咬咀-詞答楊逢彬生」, 『의고문지식』 1995: 1: 12.

30) 아무리 크게 보아도 마자인 정도일 것이다.

전 정도로 계지탕이 14냥인 것에 비하면 매우 적다. 물량도 1잔반이므로 계지탕 7승인 것에 비하여 매우 적다.

그리고 散으로 복용하는 약들은 이보다도 복용량이 적어 1錢이 표준이다.

따라서 부저하라는 것은 망치 등으로 깨뜨리는 것이다. 그리고 크기는 挫麻豆한 깨알보다는 크야 하는데, 『금궤요략』 「부인산후병맥중병치」 「제21 죽엽탕」에서는 산후중풍증에 類項強이 걸치면 부자를 큰 것으로 바꾸어 '깨뜨려 콩알크기로 한다(破之如豆大)' 라고 한 것을 보아서는 콩알 정도 인 것으로 본다.

부자 파8편은 약량의 단위가 근, 부저는 냥, 좌마두대는 전이고, 散은 1전이 표준이다.

부저하는 이유는 세포의 원형질 안에 있는 성분이 삼투압에 의하여 우러나기 쉽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나치게 잘게 부수면 찌꺼기가 나오고 가루들이 불에 떠다니므로 오히려 효과가 적다.<sup>31)</sup>

3) 물

중경은 탕으로 된 처방 101방을 달일 때 용매를 1) 냉수 2) 淸漿水 3) 漿水 4) 甘爛水 5) 麻沸湯 6) 泉水 7) 醋漿水 8) 潦水 9) 空煎水 10) 苦酒 11) 꿀 12) 白飲 등으로 구분하였다.<sup>32)</sup>

계지탕에서는 물에 대하여 특별한 주문은 없다.

31) 桂枝人參湯에서는 계지를 切하라 하였고, 『금궤요략』 10-19에서는 계지탕을 剉하라 하였는데, 이는 예외에 속한다.

32) 『중의잡지』 1984: 5: 79.

4) 1升의 분량

1升은 10승이고, 10승은 1斗인데 이것이 오늘날로 볼 때 몇cc인지가 문제시 된다. 이를 해결할 실마리는 소시호탕과 서호가망초탕에서 찾을 수가 있다. 소시호가망초탕은 약용량이 소시호탕의 1/3이다. 소시호탕에서는 반하를 부피로 1/2승 사용하였는데, 소시호가망초탕에서는 무게로 20수 사용하였다. 부피 1/2승의 1/3이 무게 20수에 해당하므로 반하 1/2승은 60수 다시말하면 2냥 반이다. 따라서 반하 1승은 무게가 5냥이 된다. 계지탕에서 감초만 2냥이고 계지·작약·생강이 모두 3냥이므로 대추 12개도 씨를 뺀 무게가 3냥이라 가정하여 추정하면 1냥은 6g에 해당하므로 반하 1승은 30g이고, 소시호탕에는 반하가 15g 들어간다.<sup>33)</sup>

그리고 오두계지탕에서 오두는 꿀 2근을 넣고 달이는데 반으로 줄어 1근이 될 때까지 달인다. 이것과 계지탕 5합을 합하여 1승이 된다 하였으니 꿀 1근은 부피가 5합이다. 1근은 16냥이고 1냥은 6g이며, 실제

33) 本云이라 하여 5개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만약 2 주분이 같다면 반하 5개는 무게가 20수이고 부피는 1/6승이다. 따라서 반하 1승은 무게가 5냥이고 30개이다. 실제로 반하를 달아보면 어렇지는 않으므로 2 주분은 다르다고 본다.

소건중탕에 황기를 더하면 황기건중탕이 된다. 소건중탕에는 옛이 1승 들어간다. 당귀건중탕에서는 원방에는 옛을 넣지 않지만 大虛하면 6냥을 넣도록 되어있다. 옛이 들어간다면 당귀건중탕은 소건중탕에 당귀를 더한 것이다. 만약 옛 1승과 6냥이 같다고 본다면, 오늘날 시중에 나와있는 옛당이 45%정도인 쌀옛을 기준으로 볼 때 70cc는 110g에 해당한다. 따라서 옛 1승과 6냥은 같지않다고 본다.

로 꿀 100cc 무게는 145g 정도이므로, 70cc는 거의 100g이 된다

계지탕을 1승 먹고 죽을 1승 정도 먹게 되어 있으므로 결국 2승을 먹는 셈이다. 만약 1승이 200cc라면 400cc가 되어 지나치게 많다.<sup>34)</sup>

한의원에서 약을 달일 때는 10일분 1제를 한꺼번에 달인다. 이러면 100℃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일분을 달일 때 보다도 오래 걸린다. 더구나 100℃가 되고 난 뒤에도 1일분을 달일 때는 7승의 물을 넣고 약이 물을 일부 빨아 들이고 일부는 그대로 증발하여 3승으로 되는데 걸리는 시간과, 10일분을 달일 때 70승의 약이 물을 빨아 들이고 일부 증발하여 30승이 되는 것과는 시간상 차이가 난다. 더구나 지금의 약탕기로는 물을 이렇게 넣어서도 안 된다. 결국 10일분을 달일 때 약과 물을 10배로 한다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달이는 시간이 달라지는데 이를 해결해야 한다.

『상한론』에서는 약이 독할수록 물은 적게 넣고 잠시만 달이는 경향이 있다. 포부자를 예로 든다면 용량이 1개·2개·3개로 구분되는데, 1개나 2개가 들어가는 처방은 모두 물 7승이 표준이나, 3개가 들어가면 『상한론』의 계지거작약가부자탕·계지거작약가부자가계지부자탕, 『금궤요략』의 계지부자탕은 물이 6승이고, 대황부자탕은 5승이다. (桂枝去芍藥加附子加) 桂枝附子湯은

계지거작약가부자탕에 계지는 1냥, 부자는 2개를 더한 처방인데도 계지거작약가부자탕은 물이 7승이고 계지부자탕은 6승이다. 그리고 생부자가 든 처방에서는 물을 3승을 넣게 된다. 이를 보면 부자가 많이 들어가면 갈수록 물량은 줄어 든다. 이는 모두는 통채로 사용하고 부자는 8조각내는 것과 의미가 같다. 따라서 약이 독성은 강할수록, 분량은 많을수록, 약크기는 크게, 물량은 적게, 달이는 시간은 짧게 한다.<sup>35)</sup> 계지탕류는 물을 8승 넣고 3승이 되도록 달여 이를 3차례로 나누어 따뜻하게 먹는 것이 기본이다. 약재가 가미되면 물량이 1·2승정도 늘어나기는 한다.

### 5) 微火의 화력

전통적으로 화력을 문화와 무화로 구분하였다. 文火는 뽕나무로 달이는 것인데 뽕나무는 송진이 없기 때문에 불이 약하다. 『영추』 「수요강유」에서도 뽕나무를 사용한 것이 나온다.<sup>36)</sup> 武火는 소나무로 달이는 것인데 송진이 있기 때문에 불길이 세다. 『상한론』에서 말하는 미화는 文火라고 본다.<sup>37)</sup> 흔히들 달인 약맛이 진하면 진

34) 계지탕을 비롯한 모든 처방에 물을 승단위로 넣게 되어있는데 1승을 재는 기구를 약달인다하여 따로 마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집에서 간단히 사용하는 그릇을 사용하였다면 1잔이 1승일 것으로 본다. 마행의감탕에서 이것의 실마리가 보인다.

35) 『금궤요략』 10-15. 대황부자탕에서는 물 5승으로 달여 2승을 만들어 3회로 분복하는데 強人은 물5승으로 달여 2승반을 만들어 3회 분복한다고 하였다. 이는 오히려 강한 자일수록 잠시만 달이게 되어있다. 대황때문이라면 약효를 강하게 하는 것이고, 부자라면 약하게 하는 것이다.

36) 張智民, 『桂枝湯煎法小議』 「중의학잡지」, 1984, 3, 80.

37) 문무화를 약물의 온도로 보아 미화는 약을 100℃에서 달이는 것이 아니라 70-80℃ 정도로 달이는 것으로 보는 설도 있다. 하지만 80℃에서 약을 달이면 약물은 증발이 매우 느려 계지탕에

할 수록 좋은 것으로 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소문』 「음양용상대론」에 나오듯이 氣味는 각각 厚薄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작용이 다르다. 기미를 음양으로 볼 때 기는 양이고 미는 음이다. 기를 다시 음양으로 구분한다면 기가 후하면 양중의 양이고 박하면 양중의 음이다. 미를 음양으로 본다면 미가 후하면 음중의 음이고 미가 박하면 음중의 양이다.

계절로 본다면 양중의 양은 여름이고 양중의 음은 양속에서 음이 생겨나는 것이므로 가을에 해당한다. 음중의 음은 겨울이고 음중의 양은 음속에서 양이 생겨난 것이므로 봄에 해당한다. 기가 후한 것은 발열한다 하였는데 이는 여름에 속하기 때문이다. 기가 박한 것은 發泄한다 하였는데 계절로는 가을에 해당하므로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것이다. 미가 후한 것은 겨울에 해당하므로 설사를 하게 하고, 미가 박한 것은 瀉하게 한다하였는데 계절로 보면 봄에 해당하므로 기운이 잘 통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기미는 각각 후박이 작용하는게 다르므로 목적하는 바대로 약의 기미가 나와야 한다. 만약 계지탕을 오래 달여 계지든 작약이든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이고, 감초도 단맛이 전혀 없을 정도이면 약의 성분이 모두 약물로 빠져나온 것같지만 실제로는 계지탕이 해야 할 작용의 기미후박이 전혀 아닐 수가 있다. 그리고 계지탕에서 나는 향기도 중요한데 이것이 오래달이는 동안에, 그리고 센불로 달이는 동안에 많은 양이 증발되

서 490cc 물을 넣고 210cc 만들려면 2시간으로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불이 세든 약하든 물은 100℃에서 끓으므로 단지 빨리 끓느냐 아니냐는 차이만 있을 뿐으로 본다.

나 파레될 수도 있다. 약을 달일 때 다도에서 차를 만들 때의 정성과 차를 달일 때 물의 온도와 시간, 그리고 맛을 음미하면서 마시는 것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찻물이 지나치게 뜨거우면 탄닌이 우려나와 떨어지고 맛이 다르기 때문에 약효도 달라진다.

#### 4) 煮

煮와 煎의 용법을 강평본에 기준하여 볼 때 煮는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煎은 再煎으로만 사용하였다. 예외적으로 再煮라고 한 처방도 2개가 있는데 소시호탕과 반하사심탕이다. 蜜煎方에서만 처음부터 煎하라하였고 대건중탕에서는 엿을 넣고 煎한다 하였다. 따라서 煮는 달인대로 보고, 煎은 졸인대로 본다.<sup>38)</sup>

#### 6) 去滓

去滓란 그물이나 천으로 받쳐 깨끗한 것만 얻으라는 것이다.

『傷寒論』에서는 힘있게 약을 짜내어란 주문은 없다. 약을 짜면 찌꺼기도 나오므로 오히려 효과는 줄어진다. 약이 진하게

38) 현재 약을 달일 때 재탕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지만 계지탕에서는 재탕하라는 주문은 없다. 『상한론』 전체를 보더라도 재탕은 없다. 소시호탕류와 반하사심탕류에서 하는 재탕은 이와는 의미가 다르다. 약을 달이다 찌꺼기는 버리고 약을 절이는 것이다.

그리고 원문은 나와있지않으나 1가지 중요한 사실은 약을 달일 때 물을 넣고 바로 달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이다. 약이 마른 상태에서 물을 붓고 바로 달이면 약의 내용물은 우려나기가 힘들다. 따라서 약을 물에 최소한 30분을 불려놓은 뒤에 달여야 세포내의 약효성분이 우려나게 된다.

나와야지만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 4. 가타

##### 1) 須臾의 시간적 의미

須臾가 구체적으로 얼마만한 시간을 의미하는 지는 『상한론』과 『금궤요략』에서 증거를 찾을 수가 있다. 이 조문과 마찬가지로 약을 먹고나서 須臾뒤에 묶은 죽을 먹으라는 주문은 『금궤요략』 「水氣病脈證并治」 第14의 계지가황기탕에서 “右六味, 以水八升, 煮取三升, 溫服一升, 須臾飲熱稀粥一升餘, 以助藥力, 溫服取微汗.”이라 한 데서 찾을 수가 있다. 『상한론』 156조 대황황연사심탕과 부자사심탕에서는 “麻沸湯二升漬之, 須臾絞去滓, 分溫再服.”이라 하여, 대황과 황연을 방금 끓인 물에 담구었다 須臾뒤에 찌꺼기는 버리고 따뜻하게 하여 먹게 되어있다. 약물이 식을 때 까지 담구어 두었다 찌꺼기는 버리고 이를 다시 데워 먹는 것은 아닐 것이고, 방금 끓인 물에 약을 넣고 약물이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찌꺼기는 버리고 약을 먹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뜨거운 물에 담구어 우려내는데 있어서 약탕기나 찻잔에 물을 담은 뒤 이를 불위에 올려놓아 물이 끓으면 불에서 내려놓고 바로 약을 넣는 것인가? 아니면 주전자로 물을 끓인 뒤 끓인 물을 약사발에 옮겨 불고 여기에 약을 넣는 것인가? 만약 끓인 물을 데우지 않은 약사발이나 찻잔에 옮겨 불는다면 그 순간 불은 식어버린다. 따라서 잔이나 주전자 자체에 물을 넣고 그대로 끓인 것으로 추측한다.<sup>39)</sup> 그리고 약을 넣고 뚜껑을 닫는지 여

는지, 그리고 주전자나 찻잔의 재질에 따라서도 따뜻해질 때까지의 시간은 달라진다. 간단한 실험으로 뚜껑에 물을 넣고 끓인 뒤 뚜껑을 덮고 5분 뒤 뚜껑을 열어 놓았다니 약물이 50 ℃가 되기에는 20분이 걸려 결국 약을 넣고서 25분이 걸렸다.

이 외에도 오매환에서는 ‘時煩, 須臾復止’라고 하였고, 팔루계지탕을 먹고서 땀이 나지 않으면 食頃뒤에 뜨거운 죽을 먹는다라고 되어있고, 45분간이란 설도 있다.

##### 2) 粥

약을 먹고나서 죽을 먹는 경우는 중경방에서 조문이 7개 있다.

이중탕 : 服湯後, 如食頃, 飲熱粥一升許, 微自溫, 勿發揭衣被.

팔루계지탕 : 汗不出, 食頃, 啜熱粥發之.

대건중탕 : 分溫再服, 如一炊頃, 可飲粥二升, 後更服, 當一日食糜, 溫覆之.

계지가황기탕 : 溫服一升, 須臾飲熱稀粥一升餘, 以助藥力, 溫服取微汗. 若不汗, 更服.

백산 : 病在膈上必吐, 在膈下必利, 不利,

도가 너무 낮다고 본다. 그리고 커피의 경우에 Caffein 은 열에 약하여 고온에서는 8분간을 견디지만 더 오랜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어 좋지않은 쓴맛이 남게 된다. Tannin 은 1분 30초이내에는 녹지 않으나 저온(20-70℃)에서는 우려나오게 되어 떫은 맛이 남는다. 따라서 Coffee를 달이는 물의 온도는 85-96℃가 적당하다.(정홍식, 『커피의 세계』, 서울: (주)비앤씨월드, 1997: 90.)

대황도 Tannin이 있으므로 이것이 참고가 될 것이다. 대황 황연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규정이 없는데 부저할 수도 있고 마두크기로 할 수도 있다.

39) 대황과 황련은 뿌리이므로 일인 茶와는 우려내는 물온도가 다르다고 본다. 茶는 끓인 물을 식혀 사용하는데, 대황·황련을 이런 온도에서 우려낸다면 온

進熱粥一杯, 利過不止, 進冷粥一杯.  
십조탕 : 得快下利後, 糜粥自養.

여기에서 죽이 어떤 약효를 내는지는 설이 구구하지만 아직도 정설은 없다고 본다.

『상한론』에서는 熱稀粥一升餘를 먹으라 하였으니 묽은 죽이나 미음을 뜨겁게 하여 1승 조금 더 되게 먹는 것이다.

### 3) 계지탕 복용시 치법 3단계

계지탕을 복용할 때는 다음과 같이 3단계 치법을 행한다.

1. 약을 微火로 달여 따뜻하게 하여 먹인다.
2. 25분 정도 뒤에 미음을 뜨겁게하여 1승 정도 먹인다.
3. 이불을 덮어 따뜻하게 하고서 땀을 조금씩 계속 2시간 정도 낸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계지탕이 표양허증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태양중풍증을 치료하는 약이란 것이다. 중풍증으로 땀이 나고 상한에 땀이 나지않는다하여 표허증·표실증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 중풍도 풍이 침입한 실증이다. 그리고 계지탕은 止汗劑가 아니라 發汗劑이다. 이것이 바로 通因通用법을 활용한 것이다. 57조가 이것의 증거가 된다.<sup>40)</sup>

## 3. 결론

계지탕의 처방내용과 전탕법을 원문에 근거하여 장중경의 의도를 살펴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약재는 채취하자마자 바로 수치한다.
2. 물 1승은 10cc 에 해당한다.
3. 약 1냥은 6g 에 해당한다.
4. 咬咀는 입으로 씹는 것이 아니라, 콩알 크기정도로 깨뜨리는 것이다.
5. 따라서 계지탕은,  
계심 (콩알 크기로 쪼갠것) 18g,  
작약 (겉질 채 말려 콩알 크기로 쪼갠 것) 18g,  
감초 (생것을 통채로 불에 구워 콩알 크기로 쪼갠 것) 12g,  
생강 (겉질 채 자른 것) 18g,  
대추 (씨앗은 그대로 둔 채 쪼개어 말린 다) 12개로서 대추살 18g에 해당한다.  
이 약재 5가지에 물 490cc를 넣고 약한 불로 달여 210cc 를 만들어 찌꺼기는 버리고 따뜻하게 하여 70cc씩 하루에 3차례 먹인다.

약을 먹고 20분 쯤 뒤 묽은 죽을 뜨겁게 하여 1승 조금 더되게 먹여 약힘을 도운다. 이불을 덮어 몸을 따뜻하게 하여 2시간 정도 온몸에 땀이 촉촉하게 조금씩 계속 나면 더욱 좋고, 땀이 물 흐르듯이 나게해서는 않는다. 그렇게 되면 병은 반드시 낫지 않을 것이다.

색인어 : 桂枝湯, 桂心, 芍藥, 甘草, 生薑, 大棗

## 참고문헌

1. 김인락. 「內經의 몇몇 句들에 대한 對句法的연구(1)」, 『大韓原典醫史學會』 1991:

40) 羅謙. 「桂枝湯適用於太陽表虛證麼?」, 『上海中醫藥雜誌』 1982: 9: 6.



제5권.

2. 김인락, 『상한론처방분류집』, 제천: 세명출판사, 1997.
3. 江蘇新醫學院篇, 『중의중약대사전』,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4. 柴瑞霽, 「重新論識肉桂“發汗解肌”作用」, 『中醫雜誌』 1989: 제5호.
5. 김기재·류오종·박소득·신중희·최부술, 「작약의 건조처리 및 절제방법에 따른 특성 변화」, 『한국약용작물학회지』 제4권 제4호.
6. 李華·姜秀淸, 「芍藥氣味功效當議」, 『國醫論壇』 1996: 1.
7. 沈濟蒼, 「桂枝湯方論當義」, 『上海中醫藥雜誌』 1982: 9.
8. 李華·姜秀淸, 「芍藥氣味功效當議」, 『國醫論壇』 1996: 1.
9. 김기재·류오종·정연준·박소득·신중희·황형박·최부술, 「작약 재배년수에 따른 根收量 및 Paeoniflorin 함량변화」, 『약작지』 제4권 제1호.
10. 김남재·진영호·홍남두, 「한약수치에 관한 연구(제4보) 수치에 의한 감초중 Glicyrrhizin의 물리화학적 변화」, 『생약학회지』 1995: 제26권.
11. 김남재·홍남두, 「한약수치에 관한 연구(제5보) 수치에 의한 감초의 성분 및 생리활성」, 『생약학회지』 1996: 제27권.
12. 김월주·김용석, 『대추재배신기술』, 서울: 오성출판사, 1995.
13. 李東 등, 『中成藥』 1987: 제11호.
14. 劉中煜, 『中藥通報』 1983: 제3호.
15. 田樹仁, 「吶咀考辨」, 『醫古文知識』 1992.
16. 楊逢彬, 「吶咀探源」, 『醫古文知識』 1993: 1.
17. 田樹仁, 「就吶咀-詞答楊逢先彬生」,

- 『醫古文知識』 1995: 1.
18. 『中醫雜誌』 1984: 5.
19. 張智民, 「桂枝湯煎法小議」, 『中醫雜誌』 1984: 3.
20. 정홍식, 『커피의 세계』, 서울: (주)비앤씨월드, 1997.
21. 羅謙, 「桂枝湯適用於太陽表虛證麼?」, 『上海中醫藥雜誌』 1982: 9.
22. 김남재·홍남두, 「한약수치에 관한 연구(제5보), 수치에 의한 감초의 성분 및 생리활성」, 『생약학회지』 1996: 27.
23. 任慶彬, 『나무백과』, 서울: 일지사, 1993.
24. 柯琴, 『傷寒來蘇集』.
25. 羅謙, 「桂枝湯適用於太陽表虛證麼?」, 『上海中醫藥雜誌』 1982: 9.
26. 山田正珍, 『傷寒論正義』.
27. 尙朴, 「古方劑量再考」, 『北京中醫學院學報』 1991: 3.
28. 柴瑞霽, 「重新論識肉桂“發汗解肌”作用」, 『中醫雜誌』 1989: 5.
29. 柴瑞霽, 「芍藥古今名實考」, 『北京中醫學院學報』 1991: 1.
30. 沈濟蒼, 「桂枝湯方論當義」, 『上海中醫藥雜誌』 1982: 6.
31. 楊逢彬, 「吶咀探源」, 『醫古文知識』 1993: 1.
32. 劉中煜, 『中藥通報』 1983: 8.
33. 李其忠·程磐基, 「『傷寒論』·『金樞要略』中迭音詞探析」, 『上海中醫藥雜誌』 1988: 5.
34. 李東 등, 『中成藥』 1987: 11.
35. 李華·姜秀淸, 「芍藥氣味功效當議」, 『國醫論壇』 1996: 1.
36. 張成元, 「張仲景方中“芍藥”的使用考證」, 『福建中醫藥』 1993: 3.
37. 張仲景, 『傷寒論』.

38. 張仲景. 『金匱要略』.  
39. 張智民. 「桂枝湯煎法小議」. 『中醫雜誌』 1984: 3.  
40. 田樹仁. 「呶咀考辨」. 『醫古文知識』 1992: 1. .  
41. 田樹仁. 「就呶咀-詞答楊逢先彬生」. 『醫古文知識』 1995: 1.  
42. 『神農本草經』.  
43. 『正字通』.  
44. 『黃帝內經』.

## Abstract

In order to standarization of Kye-Ji Tang of 『Treatise on Febrile Diseases』

In-Rak, Kim\*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tandardize the "Ki-Mi" of Kye-Ji Tang in the basis of 『Treatise on Febrile Diseases』 an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medicinal plants used are processed with hot water right after picking.
2. One seung(升) of water equals to 10cc.
3. One yang(兩) equals to 6 grams.
4. Medicinal plants are shattered to the size of beans by the process called Boo-Jeor(呶咀).
5. Kye-Ji Tang, which is composed with 5 medicinal plant(Cortex Cinnamomi : 18g; Radix Paeoniae : 18g; Radix Glycyrrhizae : 12g; Rhizoma Zingiberis : 18g; Fructus Ziziphi Jujubae : 18g), is prepared by adding 490cc water to above 5 medicinal plants and boiled to 210cc. After boiling, the residue is discarded and the extract is taken orally 3 times a day as one dosage of 70cc. It is recommended that 20 minutes after taking of Kye-Ji Tang, the additional uptake of rice porridge might enhance the pharmacological effect of Kye-Ji Tang.

**Key Words** : Kye-Ji Tang, Cortex Cinnamomi, Radix Paeoniae, Radix Glycyrrhizae, Rhizoma Zingiberis, Fructus Ziziphi Jujubae.

---

\* Department of Herbal Medicine,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